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바다에 피는 꽃
수상내역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트리트먼트 부문 장려상
작가	정재우
분야	트리트먼트
기획의도	<p>전통적인 고래잡이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희망적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기획하였음.</p>

트리트먼트 장려상

바다에 피는 꽃(정재우)

바다에 피는 꽃

#1. 마을

내 이름은 태화, 난 칸의 아들이다. 또한 수란의 아들이다.

둘은 나를 나왔다.

우리 가족은 동해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다. 오색 술이 산들바람에 날리고 그 바람소리에 고래 울음소리가 묻어있다.

난 푸른 잔디밭을 달려 포구로 나간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인다. 오늘도 맛있는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고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분명 나의 어머니도 그 고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고래의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슬퍼 보인다.

#2. 고래잡이 목선

나의 어머니 수란은 우리부족에서 유일하게 고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이지만 고래사냥을 나설 수 있었다.

뱃머리에서 검은 긴 머리를 날리고 고래소리를 쫓아 배를 지휘하는 그녀, 어느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3. 어둠이 몰려오는 바다

맑은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작은 보슬비 내린다. 고래잡이 배 바닥이 서서히 젖어든다. 작은 미끄러짐에 수란은 긴장한다. 하지만 수란이 긴장하는 것은 보슬비가 아니라 53-2이다.

멀리서 들리는 이 소리 평소에 들던 고래소리가 아니었다. 못 들은 척 하고 싶었지만 이제 월동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다.

#4. 고래잡이 목선

수란은 가장 높은 뱃머리에 앉아있는 칸에게 살짝 얼굴을 찌푸린다.
자리에서 일어난 칸은 하늘 높이 창을 들어 보인다.

#5. 마을 (추억)

나의 아버지 칸, 그는 우리 부족의 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냥술과 창던지기 기술은 누구도 따라 올수 없었다. 특히 고래잡이에서는 그의 기술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친 바다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고래의 급소를 향해 던지는 창하나, 명중 혹은 스침에 따라 그 배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6. 고래잡이 목선

하늘 높이 오른 창에 노를 젓는 사람들의 아랫배에는 힘이 들어가고 배는 서서히 속도를 올린다. 허리에서 팔뚝으로 전달된 힘이 노에 부딪칠 때 배는 전속력을 내고 있었다. 수란은 긴장한다. 뱃머리에 부딪치는 작은 물방울 소리에도 그녀는 신경이 곤두섰다. 잠시 후 그녀는 고래소리에 빠져들고 만다. 그 소리는 꼭 자기를 물속으로 부르는 소리 같았다.

수란은 고요한 바다 속 한 곳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수란의 손가락이 머문 곳을 가만히 보는 칸 앞에 거대한 검은 물체가 떠오른다. 칸이 거대한 고래를 향해 긴 창을 던지려는 순간 고래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 앉는다. 쿵~~~ 벼락같은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거품이 칸의 배를 덮친다. 고래도 칸의 자기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칸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쿵~~ 고래는 다시 거대한 물거품을 잃어 킁다. 칸의 작은 배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그 진동에 칸도 휘청한다. 긴 창으로 겨우 몸을 지탱한 칸은 겨우 몸의 균형을 다시 잡고 바다 속 아지랑이에 긴 창을 던졌다.

#7. 바다 위

검은 바다 속에 한 송이 붉은 꽃이 피어오르고, 그 꽃은 검은 바다를 순간 붉게 물들인다.

#8. 고래잡이 목선

명중이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와 만세를 부른다. 역시 오늘도 성공이다. 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수란을 바라본다. 하지만 수란의 눈에서는 한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환호의 기쁨에 모두 고래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래는 엄청난 물거품을 일으키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칸은 더욱 긴장한다. 한 번에 죽지 않은 놈은 꼭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다.

붉은 바다 속, 붉은 물거품. 하지만 고래는 보이지 않는다.

짹~~

고래 또한 자신의 마지막 사력을 다해 꼬리로 바다를 내려친다. 거대한 붉은 물보라. 칸이 타고 있는 이 배도 거대한 물보라가 삼킬 것 같다. 엄청난 흔들림에 사람들은 모두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칸 또한 넘어지고 만다.

잠시의 고요함. 그 고요함이 더욱 두렵다.

#9. 고래잡이 목선 (선미)

선미에서 북을 치던 보신은 깜짝 놀라 소리친다. “고래가 다시 나타났다 배를 짹 잡아라.”

고래는 하늘 높이 꼬리를 높이 쳐든다. 칸은 배를 가로질러 선미로 달린다. 한손으로 배를 잡고 한손에는 다시 긴 창을 손에 쥔다.

“이번만은 너의 목숨을 끊어주마!

칸은 팔을 최대한 뒤로 제치고 고래의 심장에 긴 창을 던진다. 돌창은 고래의 두꺼운 피부를 뚫고 심장에 박힌다. (고래의 심장 클로즈업) 거대한 심장에 박힌 작은 돌창은 심장이 움직일 때 마다 더욱 깊숙이 박혀든다.

잠시 후 고래는 흰 배를 보이며 서서히 물위로 떠오른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고래는 흰 배를 보이고 천천히 물위로 떠오른다.

#10. 바다

보신은 재빨리 바다로 뛰어든다. 그리고 씹줄기를 총총히 꼬아서 만든 줄을 고래의 콧구멍에 꽂아 입을 통해 묶었다. 사람들은 가져온 가죽주머니를 불어서 바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자 사람들은 공기주머니를 고래에 묶기 시작했다. 서서히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고래는 이제까지 그들이 잡았던 고래와는 크기부터가 달랐다.

부족민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칸의 이름을 외쳤다. 칸은 수란의 가냘픈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은 부족민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부족민은 칸의 이름을 하늘 높이 불렀다.

배는 앞으로 쉽게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모두 즐겁다. 보신의 북소리도 평소보다

더 경쾌하게 울린다.

올해 겨울은 어느 겨울보다 풍족하게 보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으로 귀향해 온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11. 마을의 포구

마을 포구에서 칸의 배를 기다리는 부족민들은 조금 걱정이 된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배가 들어와 한바탕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오늘 따라 배가 늦는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신의 아내는 배속에 있는 아이를 쓰다듬는다.

멀리서 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배 뒤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거대한 무엇인가가 달려있다. 배가 마을에서 보이자 부족민들은 작은 배를 타고 혹은 헤엄을 쳐 배로 달려간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움에 노래를 부른다.

배가 마을에 도착하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사람들은 고래에 묶인 밧줄을 열심히 당긴다. 모두 즐겁다.

아이들은 노래한다. (노래~)

태화는 수란에게 달려간다. 수란은 태화를 안는다. 태화는 숨이 막힌 듯 콜록인다. 수란의 품에서 벗어난 태화는 다시 칸에게 다가간다. 칸은 태화의 손을 꼭 잡는다. 태화는 아프다고 엄살을 부린다. 칸의 얼굴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미소를 보인다.

#12. 포구앞 제단

고래 앞에 제단이 차려진다. 제단 위에는 죽은 고래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보낼 칼이 놓여 있다. 수란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제단에 오른다.

수란은 고래의 이마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로 고래를 위로한다.

수란은 고래의 입과 코를 통해 묶여져있는 줄을 자른다.

수란이 줄을 자르고 돌아서는 순간 고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크게 입을 벌리고 수란을 삼킨다. 제단은 난장판이 되고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도망간다.

칸은 깊은 숨을 고르고 고래를 향해 긴 창을 던진다. 고래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린다. 이제 고래의 인기척은 느낄 수 없다. 칸은 다시 제단위에 놓여있던 긴 칼로 허겁지겁 급소를 자른다. 칸은 거대한 고래의 입을 벌리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보신이 달려온다. 부족민들도 달려왔지만 쉽게 고래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칸은 긴 창을 지레삼아 고래의 입을 벌린다. 하지만 창도 부러지고 많다.

칸은 부르진 창을 끝으로 고래의 배를 가르다. 심한 악취와 함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쏟아진다. 칸은 내용물을 미친 듯이 헤친다. 칸이 얼마 전 잡은 사슴의 가죽으로 삼아준 수란의 신발이 보인다. 칸은 수란의 신발을 당긴다.

고래의 위에서 나온 수란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하얀 수란의 얼굴은 서서히 하늘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칸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다. 마을이 짹짹하게 흔들렸지만 하늘에는 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다. 칸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그 때 부족민은 칸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13. 칸의 집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수란이 떠나서 인지 칸의 집도 지난해와 달랐다. 칸은 몸부림친 태화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무 몇 개를 불속에 던져 넣었다.

그때 멀리서 고동소리가 들렸다. 칸은 긴 창을 움켜지고 태화를 깨웠다. 적이 쳐들어왔다. 여기 조용히 숨어있어라 그리고 내가 아니면 절대 열어주지 말아라.

칸은 태화를 비밀장소에 넣고 문을 닫고 집밖으로 나왔다. 마을은 혼란스러웠다. 보신과 젊은 부족민들은 무장을 하고 칸의 집 앞으로 모였다.

방어 태세를 유지하라는 칸의 명령에 일부 부족민은 은폐하고 일부는 칸을 따라 적들이 오는 곳으로 향하였다.

#14. 마을 외곽

멀리서 적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전투를 할 생각이 없었다. 힘든 표정의 그들은 늙은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 부족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칸에게로 걸어왔다. 자신들은 산을 넘어온 사람들인데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은 폐허가 되었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남자들은 모두 사나운 짐승들에게 당해 결국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칸은 노쇠한 부족장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부족장은 젊은 아낙네들과 어린 아이들을 남기고 나이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이건 부족장의 마지막 배려였다. 최소한의 양식을 더 남겨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것이다.

#15. 마을

마을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 잠시 후 마을사람들은 각자 한 사람씩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떠난 칸의 집 앞에서 한 여인이 작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떨고 있었다. 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다.

#16. 칸의 집

집에 도착한 칸은 태화를 숨겨놓은 장소에서 꺼냈다. 태화야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놀란 태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칸은 음식저장고에서 기름이 적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잘라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삭'이라고 했다. 칸은 미삭이 먹기 좋게 잘게 음식을 잘라 주었다.

#17. 마을

힘든 겨울이 지나고 태화의 마을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였다. 부족사람들은 몹시 바빴다. 겨울 동안 묶은 이불을 널고 돌칼과 돌창을 정비하였다. 보신은 고래잡이배에 기름을 먹고 있었다.

칸은 보신의 옆구리를 꼭 지른다. “올해도 고래를 많이 잡아야 할 건데 말이다…….”

보신은 웃으며 대구한다.

“이제 부인이 둘이고 자식도 두 배로 늘어 고래도 두 배로 잡아야 하니 더 큰 북을 만들어야겠어요!”

칸도 같은 생각을 한다.

#18. 마을앞 포구

하얀 민들레가 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하늘에 올랐다. 이제 고래가 돌아온다. 칸과 부족민은 하늘과 바다에 제를 올렸다.

보신의 큰 북소리가 울렸다. 작년 보다 더욱 소리가 커졌다. 이제 첫 출항이다.

칸은 긴 창을 하늘 높이 들었다. 부족민은 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19. 바다 위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고래잡이배 철썩이는 파도가 배에 부딪친다. 작은 물방울이 칸의 얼굴에 부딪친다. 아직 물살이 차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보다 더 차가웠던 것 같다. 이곳은 고래가 항상 지나는 곳이다. 모두 노를 올리고 기다린다.

잔잔한 파도, 칸은 수란이 생각한다. 칸의 짝 진 손을 바다에 담구고 조심스럽게 편다. 바닷물에는 작은 열매가 떠오른다. 칸은 수란이 가장 좋아했던 말린 은행 열매를 수란에게 몰래 준 것이다.

#20. 노을낀 바다

바다가 서서히 붉어진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들의 고래잡이배는 빈 배로 돌아오고 있었다. 부족민들은 빈 배지만 작년 거대 고래를 끌고 오는 것 보다 더 힘들었다.

#21. 포구

마을에 도착하자 많은 부족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빈 배라는 것을 알고 모두들 실망하였다. 칸은 아무 말 없이 미삭과 태화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였다. 그 뒷날도 그 뒷날도 고래는 돌아오지 않았다.

#22. 눈보라 치는 겨울

결국 그해는 단 한 마리의 고래도 잡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마른 나무줄기와 마른 풀로 겨우 겨울을 넘겼지만 부족의 반을 잃고 말았다.

#23. 화창한 봄날의 마을

따뜻한 햇볕이 내려 쬐고 푸른 싹들이 피어오르자 미삭은 마을의 여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랐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열매와 산채를 끊어 왔다.

나와 미삭이 데리고 온 동생도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다. 처음 동생과 함께한 낚시에서 내가 20마리를 잡았지만 동생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날 저녁상에는 내가 잡은 고기가 오르지 않았다.

내 동생은 욕심이 많았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미삭도 욕심이 많았다. 난 내동생보다 모든 것을 잘했지만, 나의 어머니는 내가 동생보다 잘하는 만큼 나를 더 미워했다.

몇 일후 나와 내 동생은 다시 낚시를 위해 바위에 올랐다. 나의 동생은 내가 보지 못한 좋은 바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날 난 큰 낚시로 10마리를 잡았고 동생은 작은 낚시로 3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난 어머니로부터 칭찬보다는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24. 마을의 뒷동산(무수히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

그날도 아버지는 고래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셨다. 우리 부자는 오랜만에 뒷동산에 올라 바다로 떨어지는 별을 보았다.

#25. 칸의 집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자는 내 동생이 잡은 물고기와 어머니가 산에서 구해온 뿌리들로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아버지는 고래를 잡기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오셨고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심하게 다투셨다.

#26. 마을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을 집 앞으로 모았다 그리고 이제 고래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산에서 음식이 될 만한 것을 미리 모우자고 말했고 미삭을 책임자로 지정하였다.

#27. 마을 부근의 산

미삭의 지시로 높은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기 위해 오르자 미삭은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다. 결국 난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28. 칸의 집

긴 잠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난 우리집에 누워 있었다. 너무도 목이 말라 물을 먹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 난 동네에서 바보가 되었다.

절뚝절뚝 걷는 나, 하지만 그 이후 어머니는 나에게 미워하지 않았다.

#29. 마을 뒷동산

동생과 친구들이 창던지기 연습을 할 때도 다랑어를 처음 잡아 왔을 때도 난 절뚝절뚝 산으로 올라가 먼 바다를 보면서 고래의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나의 어머니 수란이 돌아가시신 이후 고래잡이는 전설이 되었다. 아버지와 보신 아저씨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우리 부족은 고래보다 작은 다랑어와 산에서 채취한 식물들로 생계를 이어왔다.

산에서 고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물었다 “수란의 아들이냐” 이제까지 나에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이 노인이 처음이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수란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지 그리고 난 너에게 그 능력을 보았다 근데 왜 넌 고래를 잡지 않고 이곳에 혼자 있느냐.”

난 아무 말 없이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노인은 나의 어깨춤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올바르게 걸어라” 왜 바로 걷지 않고 거짓 걸음을 걷느냐”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30. 칸의 집 (과거)

내가 고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난 내가 올바르게 걷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긴 잠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미삭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칸은 나의 엄지발톱

에 뽀족하게 만든 고래이빨을 박아두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고래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뽑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그의 눈물이 마주잡은 손을 적시었다.

#31. 뒷동산

그 노인은 웃으면 말했다. 난 모든 것을 아니 나를 속일 필요가 없다. 그날 이후 난 노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고래의 급소와 창을 던지는 방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말고 저 멀리 노인이 다녀온 곳의 동물들, 신비한 주문 등 노인은 바위 위에 열심히 고래와 동물들의 모습을 세겨가며 이야기 해주었다.

난 노인이 알려준대로 매일 돌창을 던지는 기술을 연습했다.

몇 해가 지나고 나의 팔뚝에도 힘이 쌓이는 것 같았다. 이제 나의 돌창도 물오른 나무를 한 뼘 정도 뚫을 수 있었다.

민들레 씨가 날리는 날 노인은 나에게 말했다.

“ 태화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고래가 너를 부른다. ”